

광주지역 친일 교가 교체 바람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현장 곳곳에 남겨진 친일 잔재물에 대한 청산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친일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거나 부르게 할 수는 없다"며 교가(校歌)를 바꾸겠다는 학교가 속속 등장하면서 광주 교육계에 교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남지역 독립 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광주지역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교가 교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교가를 바꾸는 운동은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를 불렀던 광주 지역 10여개 학교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광덕중·고 학교법인 측은 친일 음악가가 교가를 작곡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교체작업에 나섰다. 또 조만간 열릴 졸업식에서는 교가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덕중·고는 단체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사학법인이다.

금호중앙여고도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가 교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재단 소속의 금호중앙중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동창회와 광복회 등에 교가 교체 작업에 대한 진행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금호재단 소속 학교들은 모두 친일 음악인으로 분류된 김동진 작곡가가 곡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전후에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했던 일부 학교에서도 더 늦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교가 교체가 확정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미투(MeToo)' 운동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작곡, 작사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올해 식민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와 맞물려 '광주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TF'팀을 구성해 조만간 본격 가동기로 했다. TF팀은 교육청과 단위 학교 차원의 청산계획 수립과 지원, 자료 수집·분석·정리, 보존·활용 방안 마련,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덕중·고 이어 금호중앙중·여고 "적극 검토" 광주시교육청 TF 구성, 친일 잔재 현미경 조사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중으로 교가와 교표, 교가와 교목 등 학교 상징물은 물론 기념비 시설 등에 대한 1차 기초조사를 마친 뒤 3월부터 8월까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친일 잔재 관련 자료를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교 상징물들의 경우 교육공동체 간 협의로 변경하고, 친일 잔재 기념비와 건축물, 동상 등은 존치시킨 뒤 '다크 투어리즘'에 활용하겠다는 복안



화천신천어축제 구름인파 강원 화천신천어축제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화천군 화천천 얼음벌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광주 통학차량 단지 출입 관련 입주민 간 갈등 '일단락'

지난 26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단지 출입

어린이 통학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던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가 차량 출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해 입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7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 등 입주민 30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주차시설관리규정 제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재심의 신청서를 입주민 대표회의 측에 제출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통학차량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한 주차시설관리규정 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재심의 신청서를 입주민 대표회의 측에 제출했다.

재심의 신청서에는 입주민 규약상 재심의 요구 정족수인 전체 입주

민 10분의 1을 넘는 140여명이 서명해 참여해 재심의가 성립됐다.

재심의 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교통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입주민과 통학차량의 단지 내 진입에 따른 불편을 주장하는 입주민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입주민 대표회의는 외부차량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 등 통학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전부터 통학차량의 출입이 허용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학차량 승·하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말 이 아파트는 외

부차량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외부차량의 단지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새 주차시설관리규정을 의결, 지난 10일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가 단지 밖 인근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입주민 사이 갈등이 빚어졌다.

임형택 기자



해남 초등학교 개축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7일 오전 8시44분께 해남군의 한 초등학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축물 1·2층 약 1900㎡가 모두 탔다.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난방을 위해 지핀 불이 인근 건축자재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불응 뒤 도주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여m 거리를 0.094%(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차를 본 혐의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40m 기량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완도 경로당 화재 원인 방화에 '무게'

완도 경로당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2시58분께 완도군 노화읍 한 경로당 안방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A(83)씨와 B(85·여)씨가 숨졌다.

화재 당시 경로당에 있던 주민 4명 가운데 3명은 불이 난 안방에 머물고 있었으며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은 경로당 실내 34.29㎡ 중 안방 10㎡만 집중적으로 타고 그을렸으며 방 안에서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생수용기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가 '거친 말다툼이 벌어져 자리를 피하는 순간 A씨가 휘발유를 방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휘발유가 든 생수용기를 들고 경로당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며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목격자와 마을주민을 상대로 다툼의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육안감식 결과를 볼 때 인위적인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과 감식을 통해 목격자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시비 불은 고교생 집단폭행 3명 영장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길에서 시비가 불은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A(26)씨 등 2명과 B(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일행 3명과 B군의 친구 2명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한 술집 복도에서 고등학생 C(18)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서구 치평동에서 C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인들의 다툼을 만류하다 C군 일행과 시비가 돼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 5명은 범행 직후 인근 골목에서 마주친 C군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나이 어린 C군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 등은 A씨 일행을 말리다가 C군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우연히 다시 만난 C군의 목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